

# '민-警 문화재 수사대' 출범

### 경북경찰청 "사전예방-검거 만전"

지방경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해 9월 발족한 경북지방경찰청의 문화재사범 전문 수사대인 문화재 수사대가 민간 전문가들을 보강, 확대 개편된다.

문화재수사대(대장 김광수 경감)는 16일 '문화재 지킴이' 결의대회를 갖는다. '문화재 지킴이'에는 대학교수와 박물관 학예연구사, 향토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 12명이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 시 자문이나 감정뿐 아니라 유통경로, 사전 정보 수집 등에 대해 문화재 수사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사전 예방과 관리 및 보호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김광수 경감을 대장으로 전문수사요원 4명, 도내 각 경찰서 형사 2명씩 모두 52명으로 출범한 문화재 수사대가 그동안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 6개월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2건의 문화재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수사대 출범 전 문화재사범 검거가 일년 평균 두세 건이었던 데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는 경북 문화재자료 제 351호인 예천 승선리 석불입상 도난범 검거를 비롯해 금동여래입상(비지정)을 불법 거래하려던 골동품상 일당 적발 등 불교문화재 관련 사건도 2건이나 된다. 지난 해 9월 18일에는 안동 도산 고분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등을 도굴하려던 일당 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김광수 경감은 "문화재사범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 만큼 사전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거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나눔의 집 새원장 능광스님

### 신임이사 원행·월우·정념스님 선임

나눔의 집 새 원장에 능광스님이 선임됐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사장 월주는 7일 오후 2001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갑이 결정하는 한편 원행 월우이상 조계종 총회의원·정념(상원사 주지) 스님을 새 이사로 선임하고 법인사무국을 강화해 나눔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능광스님은 시설나눔의 집장과 나눔의 집 직역사관 관장을 겸하게 된다. <관련 인터뷰 4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5인 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복지법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3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한편 나눔의 집 원장직과 이사직에 대한 해진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사회는 또 법인체제 확립과 투명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금 및 후원자를 법인사무국에서 관리하고, 회계분야에 간사를 두어 법인회계로 처리토록 결의했다. 또 나눔의 집 직역사관에도 정식직원을 두고 운영키로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매월 20만원씩을 후원금에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어 관리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했으며, 여성부와 협의해 위안부 할머니 심리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현행 여성부 장관은 5일 나눔의 집을 방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역사관을 둘러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 "언은 바 없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

### '무문관 3년 결사' 회향 원산스님

찬바람속에서 기다림이 길었다. 그러나 3년전인 98년 음력 2월 보름 이후 한반도 열린적이 없는 죽림토굴의 문이 열리면서 스님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던 많은 대중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스스록 거리는 대바람 소리에 싸인 죽림토굴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음력 보름보름날인 9일, 상좌스님을 중심으로 무문관 3년 결사 회향법회 준비로 분주한 통도사 백련암에는 수행결사를 원만히 회향한 원산스님을 진경하기 위한 스님과 신도들로 가득했다. 쌀쌀한 산바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깔린 좌복위에 정연히 앉은 1천여 사부대중은 3년간의 무문관 수행을 회향하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산스님을 기다리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뻐서 있었다.

그러나 새벽 6시 30분경 상좌들을 통해 회향법회 소식을 들은 원산스님은 "법문할 것이 없다"며 "왜 그리 시끄럽게 하나"고 상좌들을 야단쳤다. 망상좌 정수스님(정릉 내원사 주지)은 "내가 얻은 바가 없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 하고 법문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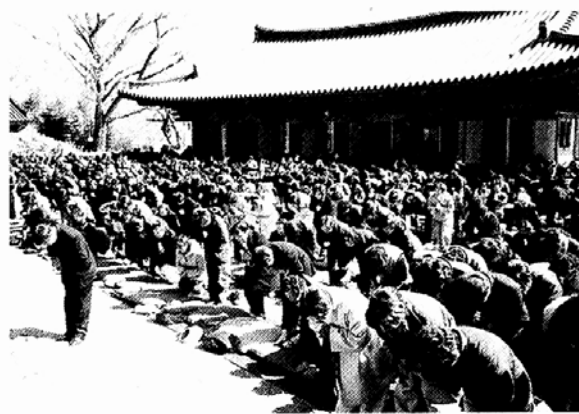
짧은 수좌들도 보통 결심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3년 무문관 수행을 위해죽림굴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듯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

통도사 백련암 마당  
1천여 사부대중 운집  
회향법회 무산 소식  
동요없이 죽림굴 삼배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뜻이라고 한다. 스스로 작정하고 들어간 무문관 수행은 누가 문을 닫은 바도 없고, 그렇기에 특별하게 문을 열 것도 없는 것이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또다른 경적을 준다. 결국 철저한 자신과의 대면만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원산스님은 지난 3년간, 사시에 불 후 시봉 스님이 죽림굴 담에 난 작은 구멍으로 전해주는 하루 한끼의 공양만을 하며 한결같이 본분사해결에 정진해 왔다. 밥과 찬이 손댄 흔적 없이 고스란히 남겨질 때면 스님의 선정삼매를 짐작할 뿐, 죽림토굴 안의 소식과 스님의 경계를 헤아릴 수는 없었다.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을 지낸 정진급 스님이 무문관 수행을 결심하고 실천에 들어가 회향한 것은, 최근 젊은스님들이 3개월 안거조차 부담스럽게 여기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풍토에 비추어 행을 위해죽림굴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듯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원산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 1천여명은 죽림토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예고했던 것인지는 모르나, 당대에 선풍을 떨쳤던 경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음에도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전문강원에서 경전을 주공부하고 통도사 직지사 강주를 역임한 학승이었던 스님에게 선은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으리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는, 문 없는 경계 앞에서 세인이 아무리 레제이라고 입을 모아도 원산 스님의 무문관은 문이 없는 문은 활짝 열기 위해 취한 한 방편일 뿐.

이제 원산스님은 3년전 그러했듯 무문관 결사의 흔적마저 지우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무문관 수행을 이어갈 것이다. 9일 3년 결사를 회향하고도 변함없이 11시 20분경 당의 공양을 받아 들고 문을 닫으시던 원산스님의 모습은 그대로 연꽃향기가 되어 대중들의 마음에 남

았다. 예불 후 정수스님이 스님의 법문이 무산되었음을 알리자 사부대중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죽림토굴을 향해 지극한 삼배를 올렸다. 일사불란하게 울리는 삼배에는 스님의 수행력을 따르겠다는 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스님의 무문관 3년 결사는 그제만으로도 철저한 수행 본연의 모습을 승가와 재가를 막론한 모든 불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수행심을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수행 결사를 더 이어갈 뜻을 언뜻 비쳤다고 한다.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있다가 홀출 모든것을 털어버리고 수행에 매진하기위해 무문관 결사를 실천한 원산스님은 이시대 수행자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는 평이다. 양산 백련암=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인사동 '마야문화원' 문열어

### 교리·불화·명상 등 강좌

서울 전통문화의 중심지 인사동에 불교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원이 13일 문을 열었다. 인사동 상갈리 빌딩에 자리잡은 마야문화원(원장 김문용)이 바로 그곳. 마야문화원은 19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교리, 불화, 요가, 심천사월요법, 도예, 영어명상, 생활역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1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법명정사 주지)이 절 수행법을 직접 지도하는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강좌, 명상의 기쁨을 활용하여 영어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능력을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익혀 활용하는 '영어명

상', 심천 박남희 선생이 10여년동안의 임상실력을 거쳐 창안한 사월요법을 가르치는 '심천사월요법', 유명도예가인 김문용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도예교실',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의 저자 주혜명씨가 지도하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워크숍 등이 관심을 끄는 강좌다. 02-722-1050 이경숙 기자

# 송광사 정보보수 교습원 개원

교계 최초로 불상이나 불감 등 목조문화재를 수리·복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습원이 문을 열었다.

송광사(주지 현봉)는 11일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인재양성소인 '정보보수 교습원' 개원식을 가졌다. 송광사 경내에 들어선 교습원은 12평 크기의 작업실과 강의실, 교습원생 숙

소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월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교습원생은 모두 7명. 고등학생에서 미술 전공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3개월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 송광사 경내에 상주하며 3년 동안 불상대생,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불상 깎기 등의 과정을 이수한다.

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호기심이 나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정보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일본 최고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재일교포 고준영(83세)가 맡아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한다. 061)755-0107 오종욱 기자

# 일산병원 20일 상량식

동국대는 3월 20일 오후 2시 교양식식사동 병원 건립 부지에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 상량식을 봉행한다.

이번 상량식은 녹원 스님(동국학원 이사장), 도원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위원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 회장 등 7만 6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2002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2년 전 공사를 시작한 일산병원은 총 3만여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금까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세계일보 '영계리포트'  
국민일보 '창조사학특강'  
사고광고 게재키로

세계일보의 '영계리포트'와 국민일보의 '창조사학 특강'으로 불거져 나왔던 언론 해보 사건과 관련, 해당 언론사들이 사과 광고 및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보여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2월 27일 '영계리포트'에 관한 사과 공문을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앞으로 보낸 후 현 대불교신문을 비롯한 5대 교계신문에 5단 광고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과문 내용이 범용으로 일관된 해명성에 그쳐 교계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전해들은 세계일보측이 7일 황종택 여론독자부장과 신찬균 주필을 보내 해명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문 게재를 공식 약속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7일 최종 입장을 정리, 국민일보 종교면에 사고형식의 기사로 사과의 뜻을 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기사 게재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다.

김주일 기자

# 선우회관 건립 추진

### '우리는 선우' 정기총회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세)는 3일 장충동 법당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연호 재건 지역회 회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장애인 나들이, 교계 청소년 단체와의 연합 청소년 캠프, 선우회관 건립,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등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두식 기자

# 탈북자 남한문화 체험

### 좋은 벗들, 12~15일

좋은벗들(이사장 범윤)은 12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탈북자들을 위한 문화탐방 행사를 갖는다.

탈북자 정규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제10기 하나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탐방은 남한의 전통문화 및 사회생활을 소개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원생들은 불보사찰인 양산 통도사를 참배한 후, 경주지역 문화유적과 불국사, 석굴암 등 불교문화를 탐방하게 된다. 02)587-8996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민

언어를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살아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450m×450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피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소원 성취**

※ 각각 독립된 동형의 케이스에 부처님 광명불이 있으며 앞면에는 반도체 축원등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외부는 고급 원목으로 조각 마감하였으므로 고급스럽고 장엄합니다. (맞춤 주문형이므로 가로, 세로 사이즈를 보내주시면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주) 삼보기획** ☎ 031-987-5361 011-206-0277  
인천영업소 032-572-8633-4